

수능 국어·영어 1·2등급 인원 감소

국어 상위권 줄고 중위권 늘어...영어 1등급 절반으로 '뚝'

제2외국어 아랍어 70%...탐구·제2외국어 등 등급컷 편차↑

수험생 80%가 가장 어렵다고 꼽았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 1등급 컷 표준점수는 132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8점보다 높아진 것이다.

시험이 어려워 전체 평균 점수가 낮아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높아지고, 반대로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아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낮아진다. 즉 유독 어려웠던 체감 난이도가 실제 결과로도 나타난 셈이다.

특히 1등급 비율은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었지만 소폭 줄었고, 2~3등급이 3~4등급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최상위권보다는 중상위권 수험생들이 난이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일 수능 채점위원장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5일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영역과 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와 도수분포 자료도 공개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1등급 컷 표준점수는 132점으로, 지난해(128점)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1등급 인원은 지난해 2만5965명(4.9%)에서 2만4723명(4.9%)으로 소폭 줄었다.

2등급 표준점수는 지난해 123점에서 125점으로 올랐다. 지난해 3만7502명(7.0%)이 해당됐으나 올해는 3만3767명(6.3%)으로 떨어졌다.

반면 중상위권인 3~4등급은 늘었다. 3등급 표준점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117점이었으며, 지난해 6만7317명(12.7%)에서 올해 6만1746명(12.7%)로 늘었다. 4등급도 지난해 8만1565명에서 올해 9만2314명(17.4%)로 늘었다.

원점수로 등급이 정해지는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도 도입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응시자 절반 이상이 1~3등급을 따냈지만 올해는 난도가 높아지면서 중하위 등급으로 그루 퍼졌다.

영어 1등급은 2만7942명(5.3%)으로 지난해(10.0%)보다 절반 이상 줄었고, 2등급은 7만5565명(14.3%), 3등급 9만7577명(18.5%), 4등급 11만767명(20.9%)으로 나타났다. 5등급(16.5%), 6등급(10.6%)도 두 자리 수를 넘겼다.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한국사 영역은 전년보다 더 쉬워져 상위권에 인원이 많이 쏠렸다. 1등급이 19만3648명(36.5%)로, 지난해(12.8%)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2등급은 7만9747명(15%)이었으며, 3

등급은 7만4694명(14.0%)이 받았다.

수학 1등급 표준점수는 가형 126점, 나형 130점이었다. 모두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것이다. 가형은 1등급 6.33%, 2등급(123점) 6.62%, 3등급(117점) 10.8%, 4등급(110점) 17.42%였다. 나형은 1등급에 2만368명(5.98%), 2등급(127점)은 5.11%, 3등급(119점)은 14.64%, 4등급(108점)은 15.36%가 해당됐다.

탐구영역 1등급 컷 표준점수는 각 과목에 따라 사회탐구 63~67점, 과학탐구 64~67점, 직업탐구 63~72점 사이에 형성됐다.

사회탐구 영역은 1등급 컷 표준점수는 ▲생활과 윤리 63점 ▲윤리와 사상 64점 ▲한국 지리 65점 ▲세계 지리 63점 ▲통사(사)사 65점 ▲세계사 66점 ▲법과 정치 65점 ▲경제 67점 ▲사회·문화 63점으로 나타났다.

과학탐구 영역은 1등급 컷 표준점수는 ▲물리 I 66점 ▲화학 I 64

점 ▲생명 과학 I 67점 ▲지구 과학 I 65점 ▲물리 II 68점 ▲화학 II 66점 ▲생명 과학 II 66점 ▲지구 과학 II 65점으로 나타났다.

직업탐구 영역의 1등급 컷 구분 표준점수는 ▲농업 이해 68점 ▲농업 기초 기술 67점 ▲공업 일반 67점 ▲기초 제도 69점 ▲상업 경제 71점 ▲회계 원리 71점 ▲해양의 이해 72점 ▲수산·해양 산업 기초 63점 ▲인간 발달 67점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69점으로 나타났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과목에 따라 64~80점에서 1등급이 결정됐다. 과목별 1등급 컷 표준점수는 ▲독일어 I 64점 ▲프랑스어 I 64점 ▲스페인어 I 65점 ▲중국어 I 66점 ▲일본어 I 67점 ▲러시아어 I 69점 ▲아랍어 I 80점 ▲베트남어 I 77점 ▲한문 I 68점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53만2207명으로, 재학생은 39만9910명(75.4%), 졸업생은 13만310명(24.6%)이었다. 지난해 치러진 2018

학년도 수능 응시자 53만327명보다 소폭 줄었다.

영역별로는 전체 응시자의 99.7%인 52만8596명이 국어 영역에 응시했다.

수학 영역은 96%인 50만9245명이 신청했다. 64.2%인 34만733명이 나형, 31.8%인 16만1852명이 가형을 택했다.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 영역은 99.4%인 52만7025명이 응시했다.

51만3721명(96.9%)이 응시한 탐구영역은 절반 이상인 26만6301명(50.2%)이 사회탐구를 택했다. 과학탐구는 24만2128명(45.7%), 직업탐구는 1%인 5292명이 치렀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6만6842명(12.6%)가 치렀다.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다. 제2외국어 응시자 중에서는 올해도 '등급 로또'를 노리며 아랍어 I 과목에 응시한 비율이 70.8%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73.5%)보다는 2.7%포인트 줄었다.

개별 성적통지표는 5일 수험생들에게 전달된다. 재학생은 학교 졸업장과 검정고시 응시자는 시험지구 교육청과 출신 학교 등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뉴스스



꽃감이 주렁주렁 4일 꽃감 추수자인 경남 함양군 서하면 오희마을을 꽃감 건조대에서 신서성씨가 친바람에 잘 익어가는 꽃감을 손질하고 있다.

김장철 '해남산 배추'로 포대같이 유통업자 2명 적발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다른 지역산 배추가 '해남산 배추'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전남도의회 김성일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해남 1)에 따르면 타 지역 배추가 해남산으로 거래되고 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특별 단속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확인됐다.

해남배추는 맛과 품질이 우수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타 지역 배추보다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어 일부 유통업자들이 해남산 배추로 속여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 달 28일부터 닷새 간 전북 지원과 함께 전북 고창, 전남 무안

등에서 배추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서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를 '전남해남'으로 표시된 배추장에 담은 일부 '포대같이' 수법으로 유통하려 한 업자 2명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기자

인도 男2명, 성폭행 신고 여성 몸에 붙질러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빈번한 인도에서 또다시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가해자들이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다며 온 몸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했다. 피해 신고를 무시한 경찰도 도마 위에 올랐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시타푸르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여성 A씨는 최근 집 근처 밭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이웃 남성 2명의 손에 끌려갔다.

이 남성들은 A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A씨는 남성들의 손을 입으로 무는 등 필사적으로 거부해 겨우 도망쳤다.

같은 날 A씨는 가족들에게 이를 알렸고, 가족들과 함께 경찰서로 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무시했다.

이를 후 A씨의 아버지는 재차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경찰은 이를 또 무시했다. A씨의 오빠는 "우리는 하루 종일 경찰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다음날 가해자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는 A씨를 찾아내 몸에 석유를 붓고 불을 붙였다. A씨는 몸 전체의 40%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도 국민들은 분노했고 경찰은 수습에 나섰다. 경찰은 A씨의 고발을 무시한 경찰관 3명을 징직하고,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문제는 일종의 고질병처럼 고착됐다. A씨의 경우처럼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알려도 무시되는 일이 다반사다.

인도 정부는 앞서 2012년 뉴델리 버스 안에서 여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끔찍한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률을 강화했지만, 성폭행 발생 빈도는 줄지 않고 있다. 경찰의 안이한 대처도 여전하다. 인도 경찰은 2012년~2016년 사이 접수된 성폭행 사건의 3분의 1가량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자 교정 아기 출산 주장 중 과학자 항불

세계 최초로 '유전자 교정' 아기 출산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중국 과학자 허젠쿠이(賀建奎·34)의 행방이 약 일주일째 묘연하다.

4일 홍콩 링귀르바오 등에 따르면 허 교수는 지난해 28일 홍콩에서 열린 2회 국제 인간유전자 편집 국제회의에서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에이즈에 내성을 가진 쌍둥이 출산에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허 교수는 홍콩의 학술대회장에 나타나 자신의 실험에 대해 사과했지만 윤리적인 논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즉 완벽한 절차를 걸쳐 연구가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사과 뿐이었다.

허 교수의 주장으로 중국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당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관련 주장이 사실이라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관 부서인 과학기술부는 "출신을 목적으로 인간배아 유전자 편집은 우리나라에서 명백히 금지돼 있는 사안으로 해당 사건은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계 윤리 마지노선을 공공연히 훼손했다"면서 이미 허 교수의 연구를 중단시켰다고 전했다.

80세 佛여성, 경찰이 쏜 최루탄 맞고 숨져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반정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고 80세 여성이 사망했다.

BBC는 지난 1일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던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창문을 닫던 중 날아온 최루탄에 얼굴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을 받던 중 숨졌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경찰은 2일까지 시위로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점차 그 세력을 키워가는 양상이다. 내무장관은 지난 2일 프랑스 전역에서 13만6000여명이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1일에는 격화된 시위로 412명이 연행되고 경찰관 28명을 포함한 130여명이 다쳤다.

유럽세 인상 반대로 시작된 이번 시위가 점차 반정부 행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는 4일 예정된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와 의 면담을 취소했다. BBC는 시위대 주도 세력 내 강경파들이 온건파들의 발언을 묵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온건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대 대표는 3일 에마누엘 마크롱 행정부의 퇴진을 요구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회가 한정됩니다.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